

### 가볼만한 전시회

#### ‘한국의 달마화첩2’ 발간 기념展



◁김창배 화백의 '달마'.

선묵화가 담원 김창배 화백이 13일 까지 서울 인사동 갤러리 서호에서 <한국의 달마화첩2> 발간기념 전시회를 마련한다. 이번에 출간한 화첩집을 펼쳐보면 '108 달마'의 모습을 소재로한 한국적 이미지의 달마 스님이 등장한다. 그래서인지 김화백의 '달마도'에 등장하는 달마 스님은 엄숙하거나 근엄하기 보다는 이웃집 할아버지 같은 친근감이 배어 나온다. 또 '108 수행 스님'에서는 선수행을 하고 있는 스님의 모습을 화폭에 담았다. 이외에도 '108 다산(茶禪)'과 '108군자도' 등 430여 작품이 들어 있다. 이번 전시회는 수많은 화첩의 작품들중 엄선된 50점이 선보인다. (02)730-3885.

#### 공사상 주제...강리나씨 설치 미술



◁강리나 작, '3×3=33'.

영화배우 출신 설치작가 강리나(39)씨가 서울삼성동 포스코갤러리에서 7일부터 2주간 동양의 '원(圓)' 사상을 근본으로 한 '3×3=33' 설치 작품을 선보인다. 강씨는 이번 설치전에서 스테인레스로 만든 구슬 33개로 100평 정도의 전시장을 채우게 된다. 강씨는 이번 작품을 불교의 '공(空)' 사상 속에서 무한을 가리키는 연거푸 세계관인 '중중무진(重重無盡)'에서 착안했다고 한다. (02)3443-0884

#### 현담스님 '오백나한도' 등 日서 전시



◁현담스님의 '오백나한도'.

불화가 현담 스님(호남대 사회교 육원 고미술과 교수)의 전시회가 11일까지 오사카 한일 문화원 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오백나한도'를 비롯해 달마도, 동자도 등 20여점이 선보인다. 특히 20년 넘게 한국의 석불사전을 찍어온 여류 작가 야스코라고하시 씨의 작품 30여점도 함께 전시된다. (011)646-4449.

## “불보살 그리면 행복해져요”

### 사불수행교본집 3권 펴낸 법인스님

“한글자 한글자씩 적어나가는 사경은 불자들에게 많이 보편화가 됐지만 사불은 그림을 그리는 부담감 때문에 기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불은 모본(초)을 따라 형상을 직접 확인하면서 그려나가기 때문에 환희심이 더 클 수 있지요.”

최근 <사불수행 교본집> 3권을 펴낸 법인 스님(서울 보광선원 주지)은 사불 수행의 장점을 이렇게 피력한다. 13년동안 사불수행 포교의 길을 걸어온 보광 스님은 이번 사불집 출간을 기념해 6월 30일부터 7월 20일까지 일본순회 사불시연회를 갖는다. 이번 행사에서 스님은 오사카 승미사 등 20개의 사

거기에 색까지 입히면 더없이 수승한 공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의 올 하반기 스케줄 표에는 역시 사불 관련 서적 출간과 시연회 행사로 꽉차 있다. 8월 고성에



◁13년째 사불수행 포교를 하고 있는 법인 스님이 이번 출간한 사불교본을 펼쳐보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 지장·관세음보살·연꽃 그리고 색 입히면 더없이 수승한 공덕

찰을 돌며 하루 30명을 대상으로 '한국 전통사불'이라는 주제의 강의와 시연을 갖는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사불 수행이 보편화된 나라입니다. 불자들이 사불수행을 하는 사찰에 들어가면 손을 깨끗이 씻고 앉아 상에 놓여진 사불세트로 사불을 하는 것이 관례지요. 그러나 우리의 전통 사불은 일본보다 훨씬 더 공을 많이 들입니다.”

실제로 화승들은 불화의 밑그림이 되는 초(草)를

#### 7월20일까지 日순회시연...8월부터 국내서

제대로 그려내기 위해 수년의 시간을 바칠 정도라고 한다. 처음 여래초부터 시작해 불보살 그림 위에 비치는 얇은 종이를 대고 3천장을 그리고, 그 다음엔 그림을 보고 3천장을 그리고, 그림을 보지않고 3천장을 그려야만 제대로 된 초가 완성된다.

이렇게 공을 들이는 만큼 사불의 원력은 깊고 원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스님의 생각이다. 이런 까닭에 89년부터 서울 성북동 길상사를 비롯해 강남 불은사, 수유리 화계사, 동산불교대학과 만해불교대학 등 10여곳에서 사불수행 강의를 꾸준히 해 왔다.

법인 스님은 “사불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는 사찰이나 문화센터 등의 불화교실 등을 찾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이를 실생활속에서 수행으로 삼아 활용하면 된다”면서 “지장보살 뿐 아니라 연꽃, 비현상, 아미타여래, 관세음보살 등 불보살을 그리고

서 열리는 세계잡버리대회를 시작으로 9월에는 해인사 원당암에서 시연회를 연다. 또 10월에는 어린이 전용 사불 교본집을 출간할 계획이다. 현재는 보광선원에서 회원들을 중심으로 주 1회 강의를 한다.

“가정에서 굳이 번거롭게 불상을 모시지 않아도 사불만 하면 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사불은 부처님과 자성불(自性佛)의 모습을 형상화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바로 수행의 대상입니다. 사불을 시작하기 전에 몸과 마음을 바로잡아 호흡을 가다듬고 한 붓 한 붓 정성껏 붓을 옮겨가며 부처님을 그려 모신다면 바로 그곳이 법당이지요.”

사불 수행이 사경 수행만큼 각 가정에서 널리 행해질 그날까지 열심히 뛰어나겠다는 법인 스님은 서둘러 일본 순회 시연회를 위해 회귀를 꾸민다.

김주일 기자 jim@buddhapia.com

## 연꽃보고 문화행사 즐기고

### 봉선사, 19~20일 산사음악회 등

남양주 봉선사는 19·20일 양일 간 '연꽃 그 물결지 않는 아름다움으로'를 주제로 경내 연지(蓮池)에서 연꽃축제를 연다. 교구불사가 연꽃축제를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일 오후 4시 영산재로 문을 여는 이번 축제에서는 육법공양에 이어 연꽃발을 중심으로 한 답들이 펼쳐진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연꽃'을 주제로 글씨를 뽐내는 사생대회도 마련된다. 또 불교사진작가 동호회원들이 과거에 찍은 봉선사 연꽃의 연꽃 사진들도 전시한다.

이날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오후 7시부터 진행되는 산사음악회. 정목 스님의 사회로 한영애, 안치환, 이창휘 등 대중가수들이 출연해 무대를

꾸민다. 또 최근 신작 앨범을 발표한 심진스님도 찬불가 음성공양을 한다. 이외에도 국립국악원의 사물놀이패들이 펼치는 국악공연은 연꽃에 흥취 빠져 있는 관객들에게 신명나는 분위기를 돋워줄 것으로 보인다.

기획국장 보인 스님은 "봉선사에는 3~4년전부터 1천여평의 연지에 기린 백련과 홍련, 수련 등 다양한 종류의 연꽃들이 풍성하다"며 "내년에는 인근에 있는 광릉수목원과 연계해 지역주민들은 물론 관광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 규모를 넓혀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봉선사는 축제기간동안 연지 주위에 연등을 밝혀 밤에도 연꽃을 감상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031)527-5974. 김주일기자

## 창작찬불가 공모 신청자 접수

### 조계종, 9월 15일부터 10월 6일까지

조계종종무원이 실시하는 제 4회 창작찬불가 공모대회의 신청접수가 9월 15일부터 10월 6일까지 진행된다.

공모작품은 불교적인 정서가 함축적으로 표현된 미발표 창작 찬불가 여야 하며, 10월 15일에 결과를 발표한다.

일반공모부분은 합창곡과 중창곡,

독창곡으로 나뉘어 지며 1인 2곡만 응모가능하다. 또 응모작품은 가사가 적힌 멜로디 악보와 복사본, 녹음테이프(피아노노반주)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종단 홈페이지(www.buddhism.or.kr)에서 다운 받거나, 운영위원회 사무실에서 배부받을 수 있다. 대상작에는 상금 300만원이 수여된다. (02)739-1830

**방송 프로그램**

<b>BBS 불교방송</b>	<b>불교텔레비전</b> <ch 32>
07:05 통일로 하나로(일)	2월 08:30 정세채의 선선건강법
09:00 뉴스	3월 12:20 이화숙의 노래교실
11:10 행복스튜디오	4월 22:00 불교TV스페셜
황정원입니다	5월 21:00 다류스페셜 실과 예술
13:03 백발가요	6월 15:00 자비의 천수천안
14:45 고승열전	7월 15:25 토살뱀희
17:10 무명을 밝히고	8월 08:30 해돋이뉴스의 차와선 이야기

**아이리ajt**

- 불교방송: <영화음악실(6월 22:05)-장승연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떠나는 영화음악과 영화로의 여행 '영화음악실' 매주 일요일 시간에는 청취자들의 영화에 얽힌 추억과 사연을 드라마 형식으로 구성해서 들려주는 '내 인생의 영화'가 마련된다.
- 불교텔레비전: <자비의 천수천안(6월 15:00)-어느 날 문득 찾아온 자궁암의 고통에 맞서 싸우는 스물 두살 흥여진씨와 관절염과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불편한 꿈을 이룸과 폐유지 수거로 홀로 손녀딸을 키워온 김성녀 할머니.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려준다.



# 법구경 강의 80송

불교방송에서는 동국대 교수, 법산스님의 설법집<법구경 강의 80송>을 테이프 제작, 판매하고 있습니다.

각박한 현실 속 현대인들의 마음에 한구절의 시처럼 쉽게 다가오는 법구경을,

법산스님은 알기쉬운 생활방편을 곁들여 불교를 접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잔잔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잠 못 이루는 사람에게 밤은 길어라.  
피곤한 사람에게 길은 멀어라.  
어리석은 사람에게 생,사 길거니  
그는 바른 법을 모르기 때문일세.  
- 법구경 수삼품

**구입문의** 불교방송 포교자료팀  
**전화** (02)706-3502~5  
**가격** 70,000원(C70×20EA)

**BBS 불교방송**

서울FM101.9MHz · 부산FM89.9MHz · 광주FM89.7MHz · 대구FM94.5MHz · 청주FM96.7MHz · 춘천FM100.1MHz

